## 플라스틱 배관 전기융착부 비파괴검사기술 국제표준 개발

길성희, 조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ydjo@kgs.or.kr\*)

폴리에틸렌 배관 융착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북미에서 개발중인 위상배열 초음파기술은 초음파의 발진시에 단일 초음파 발진자가 아닌 여러 초음파 발진자를 사용하여 각 초음파 발진자로부터 나오는 초음파의 발진 시간을 조절하여 원하는 부위에 초음파를 전자적으로 집속시키는데 각 소자의 발진시간을 적절히 조절 함으로써 배열 탐촉자에서 나오는 초음파 빔의 집속 위치나 전파 각도를 전자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다. 이러한 조향과 집속은 시편의 내부를 여러 입사각으로 검사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 수신 시에는 모재 내부의 반사신호가 각 소자별로 획득되고 획득된 신호에 시간 지연을 적용하여 수신 시에도 초음파를 집속하는데 검사영역내의 모든점에서 초음파가 집속되는 효과를 가진 동적수신집속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동적 수신을 수행한 후에 그 지점의 음압의 크기를 색깔 또는 밝기 등으로 영상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향과 집속을 빠르게 수행하면 2 차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낮은 전압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융착부의 신뢰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 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전체 부품을 통째로 검사할 수 있어서 두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 으며 해상도도 깊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